

【논 문】

조선인의 만주국군 입대 배경과 동기

—1938년 간도특설대 창설 시기를 중심으로

고 한 빈*

■ 차 례 ■

- I. 서론
- II. 만주국군의 성격과 외국인 입대
- III. 조선인의 만주국군 입대 동기
 - 1. 관(官)의 모병선전과 ‘국민의 의무’
 - 2. 민족적 명분: 명예와 치안
 - 3. 신분 상승의 욕구
- IV. 결론

국문초록

이 논문에서는 만주국군에 복무한 조선인들의 사회적 배경과 입대 동기를 분석한다. 만주국군 출신 조선인들의 역사적 의미, 특히 광복 직후 한국군의 창설과정과 1960년대 이후 개발독재에 미친 영향은 이미 선행연구를 통해 충분히 규명되었지만, ‘이들이 왜 만주국군에 입대하였는가?’라는 근본적인 질문에는 답하지 못하였다. 이에 이 논문에서는 조선인 자원입대의 결정적인 계기인 1938년 간도특설대의 창설 시기를 중심으로, 당시 관련언론의 보도와 만주국군에 참가한 조선인들의 회고를 검토한다.

만주국군은 1932년 만주국의 수립과 함께 창설되었다. 창설 당시의 만주국군은 일본 관동군의 보조부대로서 국내 치안유지 임무를 주로 담당하였으나, 1937년 이후 소련과 일본 간 국경분쟁이 잦아지자 점차 관동군의 대외작전까지 보조하게 되었다. 이러한 변화에 따라 만주국군 내에서는 대소전 발발 시 소련 영내로 침투할 외국인 부대들을 다수 조직하였고, 그 과정에서 만주국군 복무의 의무가 없던 만주국 내 외국인들의 입대가 허

* 전쟁기념관 학예연구사, 한양대학교 사학과 박사과정.

용 혹은 장려되었다. 특히 간도 일대에 집중적으로 거주하던 조선인들은 국적법 상 일본인으로 취급되면서도 식민통치의 강력한 규율 아래에 놓인 자들로서 군사 동원의 가치가 높은 집단이었다.

1938년에 본격적으로 시작된 본격적인 모병과 입대 현상을 중심으로, 만주국군에 입대를 결정한 조선인들의 동기는 크게 ①관(官)의 모병선전, ②민족적 명분, ③생계와 출세 등 개인적 동기의 셋으로 구분할 수 있다. 식민당국의 의도를 직접 반영하던 『만선일보』 등은 비슷한 시기 조선 내에서 시행된 『조선육군특별지원병령』의 시행 논리를 답습하며, 차별을 받는 조선인들이 ‘황국신민’으로의 신분 상승을 위해 군국주의의 산실인 군대에 자발적으로 투신하도록 조장하였다. 한편 간도특설대에 자원입대한 조선인들은 같은 민족의 거주지역인 간도의 치안을 지키는 한편 민족의 우월성을 대표한다는 자긍심을 가졌다. 만주국군에 자원한 조선인들은 자신들의 복무 동기를 재만 조선인 사회가 낳은 민족정신의 발로(發露)로 치환하는 경향을 보이며, 이러한 서사는 친일부역행위의 대한 상투적인 변명이자 실제로 당시 지원자들이 경험하였을 ‘협력적 민족주의’의 심상이 반영되어 있다.

주제어: 만주국군, 간도특설대, 간도 한인, 친일, 군국주의

I. 서론

2016년 발표된 한석정의 『만주 모던: 60년대 한국 개발 체제의 기원』은 1930년대 만주국의 개발이념이 곧 1960년대 한국 개발독재의 원형이 되었음을 지적하여 역사·사회학계에 큰 반향을 일으켰다.¹⁾ 만주국에 몸담았던 조선인들이 광복 이후 한국에서, 특히 군맥(軍脈)을 매개로 개발독재 시기의 엘리트 집단을 이루었음은 이미 널리 지적된 바였지만, 한석정은 이들의 사고방식을 단순히 친일의 문제로 다루지 않고 개발 지향의 파시즘, 즉 ‘만주 모더니티’로 구체화시킨 것이다. 만주국의 역사는 이제 한국 재건체제의 역사적 뿌리로서 재평가되고 있다.

1) 한석정, 2016, 『만주 모던: 60년대 한국 개발 체제의 기원』, 문학과지성사.

만주국과 한국을 매개하는 것은 군인, 즉 만주국군에서 복무했던 조선인들이었다. 만주국군 내 조선인의 규모가 얼마나 되는지는 전해지지 않지만, 1987년 한국군 내 만주국군 출신자들의 동인지인 『만주국군지』의 서문에서는 이들 가운데 “50여 명의 장성급과… 대통령, 국회의장, 국무총리, 국방장관, 군 참모총장, 해병대 사령관” 등이 배출되었음을 자랑스럽게 적고 있다.²⁾ 한국군의 창설 과정에서 식민지기 군 경력자의 유입은 필연적인 것이었으나, 일본군 출신자에 비해 소수였던 만주국군 출신자들이 1960년대 이후 군과 정계를 완전히 장악한 것은 괄목할 만한 현상이었다. 앞선 연구에서는 한국전쟁 이전부터 이승만 대통령에 의해 조장된 군 내 파벌대립에서 만주국군 출신자의 대표 격이었던 정일권·백선엽이 두각을 드러낸 점, 혹은 일본군 출신자들과 달리 미군의 고문 체제에 순응하여 결과적으로 미군의 지지를 받은 점이 지적되었으나 이러한 분석은 여전히 1960년대 ‘만계(滿係)’가 정계를 지배한 원인을 해명하지 못한다.³⁾

만주국군에 관한 선행연구를 살펴보면, 우선 일본 학계에서 관동군의 치안유지를 분담한 만주국군의 역할이 주로 조명되었고 최근에는 일제의 패망 직전에 침략작전을 보조한 부대로 그 역할이 변화하였다는 연구가 제출되었다.⁴⁾ 국내에서는 만주국군이 토착인들을 치안유지에 투입한다는 실무적 이유뿐만 아니라 만주국 청년의 황민화에도 중요한 역할을 수행했음이 지적되었다.⁵⁾ 만주국군에 복무한 조선인에 관해선 조선인으로만 구성된 간도성 조선인특설부대, 이른바 ‘간도특설대’에 관한 연구가 상당한 누적을 이루었으나, 이들 대부분이 특설대의 친일부역행위를 규명하는 데 천착되어 있어 만주국군 내 조선인 전반에 대한 조명

2) 김석범 외, 1987, 『만주국군지』, 발행처 불명. 이하의 각주에서는 ‘『만주국군지』’로 표기한다.

3) 양영조, 2003, 「한국전쟁기 해외 군사경력자들의 재편과정과 정치화」, 『한국근현대사연구』 26, 한국근현대사학회; 안정재, 2005, 「만주군 출신 장교들의 한국전쟁과 주한미군에 대한 인식」, 『한국인물사연구』 3, 한국인물사연구회.

4) 浅田喬二・小林英夫 編, 1986, 『日本帝國主義の滿洲支配』, 吉田裕, 출판년도, 「軍事支配」; 山田朗, 출판년도, 「軍事支配(2) 日中戦争・太平洋戦争期」, 時潮社; 及川琢英, 2014, 「滿洲國軍と國兵法」, 『歴史學研究』 921; 及川琢英, 2016, 「『滿洲國軍』の發展と軍事顧問・日系軍官の『滿系』統制」, 『北大史學』 56.

5) 한석정, 2009, 『만주국 건국의 재해석 - 괴뢰국의 국가효과 1932-1936』, 동아대학교출판부; 유지아, 2019, 「만주사변 후, 만주국군 창설과 역할 변화 -일본의 만주국군 지도요령을 중심으로-」, 『일본학』 48, 동국대학교 일본학연구소.

에 미치지 못하였다.⁶⁾ 한편 미국에서는 에커트(Carter J. Eckert)의 저작을 통해 박정희의 군사주의의 연원으로서 만주국군의 이념이 분석되었고, 그 과정에서 만주국군 사관학교를 졸업한 조선인 전체에 대한 개괄도 이루어졌다.⁷⁾ 이와 같이 만주국군에 복무한 조선인에 관한 연구는 개별 인물과 부대를 중심으로 한 친일 행적, 그리고 그들이 한국 사회에 이식한 군사주의를 분석하는 데 집중되어 있다. 가장 최신의 연구성과로는 이쿠라 에리이[飯倉江里衣]의 저작이 특히 주목할 만하다.⁸⁾ 이 연구에서는 만주국군 내 조선인의 입대 동기가 대부분 특권적 엘리트 출신으로서의 자부심과 출세욕에 있었음을 밝혔으나 그 분석 대상은 군관학교를 졸업한 장교 출신자로, 문제의식은 광복 이후 한국에서 이들의 영향력을 규명하는 데 천착되었다. 결국 앞선 연구들에서 공통적으로 ‘왜 조선인이 만주국군에 입대하였는가?’에 대한 근본적인 질문에 대한 답이 부족하였다는 한계가 있었다.

조선인의 만주국군 입대는 매우 독특한 현상이다. 1945년 패망까지 온전한 국적법을 갖지 못한 만주국군의 장병들은 중국인(한족·만주족)은 물론 ‘외국인’인 일본인과 조선인, 심지어 몽골인과 백계 러시아인까지 자원을 받아 군무를 부과하였다. 이 가운데 조선인 입대자는 대부분 간도의 이주민 집단에서 배출되었지만, 한반도 본토에서 오직 자원입대를 위해 만주로 이주한 자들도 상당수 포함되어 있었다. 피식민지의 만주 식민경영 참여에서 한 발짝 더 나아가 현지 입대, 나아

6) 偽滿史料叢書編委會 編, 1993, 『偽滿軍史』, 차상훈, 1993, 「간도특설부대시말」, 길림민족출판사, 581~591쪽; 신주백, 2002, 「만주국군 속의 조선인 군인들」, 『역사문제연구』 9; 친일반민족행위 진상규명위원회 (내부 자료), 『2006년도 학술연구용역 논문집』 5, 홍석률·박한용·이규태, 출판년도, 「만주국군」 기초 조사 및 조선인 장교 중점연구, 『학술지』호수, 학회명, 279~431쪽; 김주용, 2008, 「만주지역 간도특설대의 설립과 활동」, 『한일관계사연구』 31, 한일관계사학회; 조건, 2009, 「일제의 간도성 ‘조선인특설부대’ 창설과 재만 조선인 동원(1938~1943)」, 『한국근현대사연구』 49, 한국근현대사학회; 김학동, 2010, 「장혁주의 「조선괴뢰부대의 최후」론-항일군 토벌에 입한 간도특설대 조선인 장교의 변명」, 『일본학보』 83, 한국일본학회; 김효순, 2014, 『간도특설대: 1930년대 만주, 조선인으로 구성된 ‘친일토벌부대」, 서해문집.

7) Eckert, Carter J., 2016, *Park Chung Hee and Modern Korea: the Roots of Militarism 1866-1945*, The Belknap Press of Harvard University Press.

8) 飯倉江里衣, 2021, 『滿洲国軍朝鮮人の植民地解放前後史: 日本植民地下の軍事経験と韓国軍への連続性』, 有志舎.

가 ‘자원입대 이주’에까지 미치는 이러한 현상은 같은 시기의 다른 식민지에서 찾아보기 힘든 사례이다. 만주국군에 입대한 조선인들의 가장 근원적인 공통점은 바로 이 지점에 있을 것이다.

본고에서는 앞선 연구의 미비함을 보충하기 위해 만주국군에 복무한 조선인들이 공유한 사회적 배경과 입대 동기를 분석하고자 한다. 우선 1938년 간도특설대의 창설로부터 시작된 조선인의 만주국군 입대 독려의 현상을 『조선일보』·『동아일보』·『만선일보』 등의 보도를 통해 확인하고 그 속에 반영된 식민권력의 의중을 분석한다. 이어지는 내용에서는 조선인들의 만주국군 입대 동기를 당시 만주국군에 참가한 조선인의 회고를 통해 검토한다. 마지막으로 당시 조선인 입대자들이 만주의 정세를 어떻게 이해하고 여기에 편승하고자 하였는지를 제시한다.

II. 만주국군의 성격과 외국인 입대

일제 관동군은 1931년 9월, 장쉐량(張學良)이 다스리던 동북 3성을 침략하는 ‘만주사변(滿洲事變)’을 일으켰다. 이 사건으로 동북 군벌들이 몰락하자 관동군은 이듬해 3월 동북 3성을 관할하는 만주국(滿洲國)을 건국하고 청의 마지막 황제였던 선통제 푸이(溥儀)를 집정에 앉혔다. 동북지역에 대한 일제 본국과 관동군의 지배욕을 관철하고, 대외적으로는 이를 ‘독립국 건국 지원’으로 위장하는 수단으로써 만주국이 등장한 것이다. 이러한 만주국의 괴뢰적 성격을 가장 잘 보여주는 것이 바로 건국 다음 달인 1932년 4월에 창설된 ‘국군(國軍)’, 즉 만주국군이었다.

만주국군은 외견상 독립군의 정규군이었지만, 실제 운용 면에서는 관동군의 의도와 통제에 복속된 보조부대였다. 일제 육군참모본부는 1932년 4월 「만주국의 국방에 관한 건」을 통해 “만주국의 국방과 만몽(滿蒙)에서의 제국의 국방은 (...) 사실상 거의 같은 의미로 보는 것이 지당”하다고 보았고, 이에 따라 관동군으로 하여금 5월 20일 푸이의 만주국 국방의 위임 의사에 대한 회신을 통해 “만주국의 치안유지는 관동군을 골간으로 하는 한편 만주국의 경찰 및 경찰적 군대

를 지도하여 여기에 임하게 한다.”고 하여 관동군과 만주국군 간의 위계를 규정하였다.⁹⁾

창설 당시 만주국군의 주된 임무는 국내 치안유지 임무에서 관동군을 지원하는 것이었다. 당시 만주국 국내의 치안은 1932년 여름부터 약 30만 명에 달하는 ‘병비(兵匪)’의 창궐로 교통이 두절되고 전국 126개 세무서 중 중앙에 세금을 제대로 송금하는 곳이 20개 정도에 불과할 정도로 불안한 상태였기 때문에, 소련군과 대치 중인 관동군으로선 국내 치안유지 부담을 덜어줄 만주국군의 보조가 필요했던 것이다.¹⁰⁾ 이를 위해 만주국군은 기존 동북군의 병력을 흡수하여 창설 직후 11만 명의 병력을 조성하였지만, 1934년 9월경까지 1,600여 명의 중국인 군관을 비롯하여 군무에 재능이 없는 자들을 퇴거시키는 정군(整軍)을 통해 그 수가 8만 명까지 줄어드는 불비한 상황에 놓여 있었다.¹¹⁾

이와 같이 치안유지 임무에 국한되어 있던 만주국군은 1937년 6월 건차자도(乾岔子島) 사건을 통해 변화하게 되었다. 아무르 강의 하중도(河中島)였던 건차자도는 소련과 만주국 사이에서 영유권 분쟁이 있었는데, 여기서 소련군과 관동군 간의 교전이 발생한 것이다. 이를 계기로 일본 육군은 대소정책에 대해 교섭보다 무력을 우선하는 방침이 우세해지고, 이에 따라 만주국군의 역할 역시 ‘외정(外征)’의 임무가 일부 부여되기 시작하였다. 실제로 만주국군은 이어진 소일 국경분쟁, 즉 1938년 7월 ‘장고봉(張鼓峰) 사건’과 1939년 5월 노몬한사건에 출동하여 소련군과의 교전에 직접 참여하는 등 그 역할이 관동군의 대외작전 보조부대로 변화하였다.

이러한 변화의 시기에 맞춰 만주국군 내 외국인 입대가 본격화되었다는 것은 주목할 만하다. 1937년 6월에는 만주 내 백계 러시아인들을 이루어진 ‘아사노[淺野]부대’, 같은 해 9월에는 조선인으로 이루어진 ‘조선인특설부대’, 1939년 신장 방면의 회교부대, 1941년 몽골인 기병대원들로 이루어진 ‘이소노[磯野]부대’와 통구

9) 滿州國軍刊行委員會, 1920, 『滿州國軍』, 蘭星會, 6~7쪽.

10) 吉田裕, 출판년도, 앞의 논문, 98쪽.

11) 신주백, 2002, 앞의 논문, 81쪽.

소속 사냥꾼들로 이루어진 ‘오로춘[鄂倫春]부대’가 각각 창설되었다.¹²⁾ 조선인을 제외하고 상기된 민족은 만주국 내 인구가 가장 많았던 백계 러시아인은 7만 명, 가장 적은 오로춘족은 불과 3천 명 수준에 불과한 소수집단이었지만, 이들 모두가 대소전 발발 시 소련 영내로 침투할 목적으로 선발·양성된 것이었다. 만주국은 1940년 10월 잠행민적법(暫行民籍法)을 시행할 때까지 ‘국민’에 대한 법적 정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였고, 자연스레 군무의 부과 대상으로 외국인이 포함되는 일에 장애물이 없었음은 물론 활용목적에 따라 도리어 장려된 것이었다.¹³⁾

한편 조선인의 만주국군 입대는 상기한 외국인 소수민족의 입대와 다른 특징이 있었다. 우선 만주국 내 조선인 인구는 1940년 만주국 국무원 총무청의 통계를 기준으로 130만 9천여 명으로 만주국 전체 인구 4,108만 명 중 약 3.2%를 차지하였지만, 국적상의 지위는 일본인(212만 명, 약 5.2%)과 동일하였으므로 ‘소수민족’으로 호명되기 어려운 지위에 놓여 있었다.¹⁴⁾ 재만 조선인은 모두 이주민이긴 하였으나 그 이주가 시작된 시기가 남만주는 1850년대, 북만주는 늦어도 1890년에 이를 만큼 오랜 정착사를 갖고 있었고, 이주민의 수 역시 1931년 만주사변 직전에 약 80만 명에 이르고 있었다.¹⁵⁾ 또한 만주국 건국 시점에서 이미 20여년간 식민통치를 받은 조선인 이주민들은 재만조선인민회, 간도협조회 등 친일 부역단체들을 통해 일제의 밀접한 통제를 받고 있었다. ‘오족협화(五族協和)’를 국가이념으로 선전하던 만주국의 입장에서, 국적법 상 일본인으로 취급되면서도 식민통치의 강력한 규율 아래에 놓인 재만 조선인들은 군사 동원의 가치가 높은 집단이었다.

12) 김효순, 2014, 앞의 책, 149~151쪽.

13) 만주국은 1940년 4월 국병법(國兵法)을 제정해 19세 이상의 ‘제국인민다운 남자(帝國人民タル男子)’에게 현역병 3년의 병역의무를 부과하고 일본·조선인 등 동맹국적자는 지원에 의해서만 복무토록 규정하였다. 잠행민적법보다 국병법의 제정이 앞섰던 것은 만주국 내 국적법의 필요성이 징집제의 실시와 밀접한 관련이 있음을 보여주는 방증이다(陸軍省人事局徵募課, 「滿州國軍人ノ徵集ニ関シ疑義ノ件」(1937年7月15日), 陸軍省大日記甲輯昭和12年, アジア歴史資料センター, C01001443400).

14) 國務院總務庁統計処・國務院治安部警務司, 1942, 『滿洲帝國現住人口統計(職業別編)』.

15) 김영숙, 2018, 「조선인의 만주 이주와 일본의 식민지 지배 구조 -만주국 건국 이전을 중심으로-」, 『한국일본연구단체 제7회 국제학술대회(한국일본학회 제97회)』, 한국일본학회, 43쪽.

기록으로 확인되는 조선인의 만주국군 입대 중 가장 이른 사례는 1932년에 설립된 만주국 중앙육군훈련처(이하 ‘평톈[奉天]군관학교’)에 입학한 자들이다. 『만주국 군지』에 따르면 1934년에 입교한 제3기의 김정호(金正晧)를 시작으로, 1940년 만주국 육군군관학교(이하 ‘신징[新京]군관학교’)로 개편되기 전까지 7개 기수 총 42명의 조선인이 만주국군 장교로 배출되었다. 1940~45년 중 신징군관학교를 통해 배출된 조선인은 7개 기수 총 39명이었다.¹⁶⁾ 만주국군의 사관학교를 거친 조선인들은 비록 81명에 불과했지만, 당대 재만 조선인 사회 내에서 물론 광복 이후 군과 정계의 핵심 인물들로 자리매김하였다.

조선인의 만주국군 사병 입대 현황은 몇 가지 사례를 통해 간접적으로 추론할 수 있다. 가장 대표적인 사례는 1938년에 창설된 간도특설대이다. 같은 해 10월에 모집된 최초의 223명은 간도특설대 제1기생으로서 부대 창설의 기간 인원이 되었고, 이후 1939년 한 해를 제외하고 1945년 해산 시까지 매년 1기씩을 선발해 총 7개 기수, 약 690여 명의 조선인이 간도특설대의 사병으로 복무하였다. 부대 규모는 평균 3백 명대를 유지하였다.¹⁷⁾ 또 다른 사례로서 1938년에 만주국군 병으로 입대한 경험이 있는 임익순의 회고에 따르면 자신의 근무한 독립 제1자동차대(일명 ‘야나세[築瀨]부대’)에서는 “사병들은 조선인이 절반쯤, 일본인이 25퍼센트 가량, 중국인이 그 나머지를 차지”했다고 적었다.¹⁸⁾ 그의 회고를 받아들이자면 일부 만주국군 부대 내에서는 조선인의 비중이 일본인을 상회할 만큼 상당했다고 생각된다.

16) 『만주국군지』, 43~44쪽.

17) 김주용, 2008, 앞의 논문, 117쪽; 김효순, 2014, 앞의 책, 146~147쪽. 『만주국군사』에서는 1938년 창설로부터 1945년 해산까지 약 2,100명의 사병이 근무했다고 밝혔다(『만주국군사』, 36쪽).

18) 임익순, 2013, 『내 심장의 파편: 백마고지의 영웅 임익순 대령 회고록』, 시월, 57쪽.

Ⅲ. 조선인의 만주국군 입대 동기

그렇다면 만주국군에 입대한 조선인들은 병역의 의무가 없었음에도 왜 자원을 하였던 것일까? 여기에서는 1938년에 본격적으로 시작된 본격적인 모병과 입대 현상을 중심으로, 만주국군에 입대를 결정한 조선인들의 동기가 무엇이었는지를 크게 ①관(官)의 모병선전, ②민족적 명분, ③생계와 출세와 같은 개인적 동기의 셋으로 구분하여 검토하겠다.

1. 관(官)의 모병선전과 ‘국민의 의무’

만주국군 조선인 모병선전은 1938년 9월 15일에 창설된 간도특설대의 지원병 모집으로 본격화되었다. 그 이전까지 만주국군에 입대한 조선인은 정책적 모병이 아닌 개인의 선택에 의한 것이었고 그 입대 규모도 미미하였지만, 간도특설대의 창설을 즈음하여 간도성 내 조선인 친일단체와 역시 일제의 자금지원을 받는 친일신문인 『만선일보』를 중심으로 한 모병선전이 활발히 전개되었다. 이들의 목소리는 관(官)의 입장, 즉 간도특설대의 창설에 합의를 관동군과 만주국군의 관점을 구체화한 것이었다.

간도특설대의 창설은 앞서 만주국의 동부 만·소 국경을 감시하던 ‘국경감시대’에 그 기원을 두고 있다. 만주국군은 1935년 이 국경감시대를 편성하고 그 안에 수 개의 연(連: 중대)을 조선인으로 충원하였다가 1939년 그 임무를 경찰에게 이관하고 폐지된 바 있었다.¹⁹⁾ 이들 조선인 장병들의 활동상은 당시에 크게 알려지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²⁰⁾ 그러나 1937년 중일전쟁의 발발로 만주국 내

19) 『만주국군지』, 32~33쪽.

20) 「조선일보」는 1937년 1월 22일 기사를 통해 국경감시대 내 조선인의 활동에 대한 짧은 보도를 낸 적이 있는데, 이 내용을 통해 당시 국경감시대의 활동 내용과 더불어 이들에 대한 대중의 이해가 크지 않았음을 동시에 알 수 있다. 그 보도내용은 다음과 같다. “만주국 수분하(綏芬河) 국경감시대 육일대(旭日臺)부대의 제1소대장 육군 기병소위 김응조(金應祚) 씨는 가사 관계로 일전에 귀경하였는데 그 지방 사정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말했다. 우리 부대는 순 조선 출신으로 조직되었습니다. 우리가 만소 국경의 맨 앞에서 위험과 치위를 무릅쓰고 분투하는 것은 만주국 치안을 유지하고자 함은 물론이요, 오죽 협화의 근본정신에 의한 것입니다. 우리는 국경을 지키는 동시에 그곳에 이주하여 있는 동포를 위하

치안유지는 일본 관동군의 중요한 관심사가 되고, 조선과 소련의 국경이 모두 맞닿으면서 동시에 조선인의 비중이 높은 간도성의 치안은 관동군과 만주국군의 특별한 고려를 요하게 되었다. 즉 “[간도성 내 조선인의] 애국적 자각심과 협력심을 결집하고 조선인 거주 지구에 조선인 부대를 배치한다는 정치적 고려 하”에 조선인으로 구성된 부대, 즉 ‘조선인특설부대’를 창설하고자 한 것이다.²¹⁾ 한편 전후 일본 내 만주국군 관련자들을 모아 집필한 『만주국군』(1970)은 간도특설대의 창설을 기획한 오코시 노부오[小越信雄] 중좌가 ‘연길특무기관장’이었음을 들고 있는데, 이 특무기관의 상위조직인 관동군 정보부는 본고에서 앞서 다룬 백계 러시아인 부대를 운용하던 주체였다.²²⁾ 간도특설대가 단순히 만주국군의 치안유지 부대에 그치지 않고 관동군의 첩보조직으로서 각별한 고려 속에 창설되었음을 암시하는 대목이다.

간도특설대의 창설인원 모집을 위한 홍보는 1938년 10월에 언론을 통하여 본격적으로 이루어졌다. 당시 보도에서 주목할 만한 점은 만주국군 자원입대의 기회를 간도성 거주 조선인들의 ‘애국심’과 충성에 대한 보답처럼 묘사하고 있다는 것이다. 『동아일보』의 1938년 10월 12일자 보도에는 당시 간도특설대원 모집에 관한 세부 사항과 함께 여기에 동원된 핵심적인 수사들이 잘 요약되어 있다.

간도성 거주 53만 조선인은 이미 애국기 간도호를 헌납하고 또 총후(銃後)의 제(諸) 활동에 헌신적 열의를 보이는 등 더욱더욱 애국의 적성(赤誠)을 보이고 있는데, 이 중 제2관구에서는 이들 조선인의 열의에 응하여 오래 대망 중이던 만주국군 조선인특설부대를 신설해 민족협화의 큰 기(旗)를 들고 왕도 국가 방위에 광영 있는 일익을 조선인도 부담하게 됐다.

모집 인원은 288명, 모집 기일은 10월 10일부터 10월 말까지로서 조건은 만 18

여서도 될 수 있는 데까지 보호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번에 돌아온 길에 특히 말씀하고자 하는 것은 그곳에 있는 사람들이 너무 고적히 지내는 터이니 조선 내지에서 다소라도 위문의 뜻을 표하여 주었으면 얼마나 고마워 할지 모릅니다. 편지도 좋고 약소한 물품도 좋습니다. 여하간 국경에서 분투하는 군대에 대하여 일반의 이해가 좀 더 깊었으면 좋겠습니다.”

21) 滿洲國軍刊行委員會, 앞의 책, 193쪽

22) 조건, 2009, 앞의 논문, 53~54쪽.

세 이상 20세 미만에 간도성 내에 거주하는 국어 아는 조선인으로 초등학교, 보통학교 졸업 정도의 학력을 가지는 자로서 복무연한 3년, 능력과 희망에 따라서는 군사[軍士: 하사관], 군관예의 승진의 길도 열린다.²³⁾

조선인의 ‘광명 있는 일익’이 강조되는 이러한 서사는 같은 해 4월 조선에서 시행된 조선인의 첫 일본군 사병 자원입대, 즉 「조선육군특별지원령」의 시행 논리와 동일한 것이었다. 조선인의 일본군 복무 문제는 조선과 일본 본토에선 이미 1910년 한일합방서부터 논의되어 왔는데, 군역의 부과는 의무교육·참정권의 부여와 불가분의 관계인 탓에 일본정부로부터 오랫동안 시기상조로 여겨져 왔다. 그러나 1937년 중일전쟁을 계기로 일본 내에서 병역자원 확보에 대한 우려가 고조되자 징병제의 실시에 앞서 조선인 사이에서 일본군 복무에 대한 긍정적인 분위기를 환기시키기 위해 육군특별지원병제도를 실시하게 되었다.²⁴⁾ 즉, 식민지인으로서 차별받는 조선인들이 ‘황국신민’으로의 신분 상승을 위해 군국주의의 산실인 군대에 자발적으로 투신하도록 조장한다는 것이다. 『만선일보』의 1940년 1월 30일자 사설에서는 군 복무를 통한 권리 획득의 욕망을 자극하는 수사로써 육군특별지원병제도의 예를 직접 들고 있다.

무릇 병역은 국민 된 자의 3대 의무의 하나로 한결같이 이 병역의 의무를 저야 할 것이지만 건국 일천한 관계로 선계(鮮係) 국민의 국가의식 내지 국민적 감격이 그리 고양되어 있지 못한 객관적 정세로 인하여 의무병역제의 실시에까지 이르지 못하지만, 금반 제2차 조선인특설부대를 모병한다는 것은 점차 선계 국민에 대한 국가의식 내지는 국민적 감격이 다른 민족에 뒤떨어지지 않을 정도로 치열하고 양양되어 있다는 것을 입증하는 것으로… 근자 조선 내에서는 내선일체 황도 정신의 파악이 정치적 견지에서 요청되는 것은 말할 것도 없고 문화 경제 제도 위에 있어서도 그 혼연일체를 요구하고 또 그 실과(實果)를 보여주고 있음은 함께 경축

23) 『동아일보』 1938년 10월 12일.

24) 육군특별지원병제도의 시행 배경과 성격에 대해서는 표영수, 2014, 「일제강점기 육군특별지원병제도와 조선인 강제동원」, 『한국민족운동사연구』 79 참조.

하지 않을 수 없는 바이요, 이것의 가장 빛나는 두드러진 감격적 표현으로서 드러난 것이 예의 육군특별지원병제도였다. … 이는 조선인의 국민적 자각이 지나사변을 계기로 하여 일단 고양된 것을 의미하는 것이라 할 것이겠다. 그 지원병제도의 획기적 확충과 함께 우리 만주제국의 제2차 조선인특설부대의 모병은 우리에게 중대한 의무 이행의 한 분야를 할여하는 것이니만큼 이에 선제 국민 된 자의 자각이 높아져야 할 것을 절실히 느끼는 바이다.²⁵⁾ [강조는 필자]

그러나 이러한 설득이 당시 간도성의 조선인에게 큰 설득력이 있었는지는 의심의 여지가 있다. 같은 시기 조선인을 대상으로 한 관(官)의 모병선전은 조선과 만주 모두 국민으로서의 의무를 다하라는 데 초점을 맞추었는데, 이는 실제 모병에 응소함으로써 지원자에게 제공되는 실질적인 혜택이 미미하였기 때문이었다. 조선인 군사동원의 가장 첨예한 문제였던 참정권 문제는 선불리 기약했다가는 조선인들의 참정운동으로 비화되어 도리어 전시동원에 장애가 될 우려가 있었다. 따라서 모병선전에서 보장할 수 있는 지원 우대사항은 상기된 기사에서 적힌 바와 같이 군 간부로 진출이 가능하다는 정도에 그쳤다. 간도특설대의 지원 추세도 『만선일보』의 1940년 1월 31일 보도에서는 화룡현에서만 “애국에 불타는 각촌 유지청년 2천여 명이 용약 지원”하였다는 등 활발한 지원세를 보였다고 주장하였다. 그러나 같은 신문에서는 앞서 같은 달 18일에 개최된 화룡현 ‘국군조선인부대 모집협의회’에서 관내 적령청년들을 기일을 정해 모두 집합시켜 모병 전형에 참여시키기로 결정을 해둔 상황이었다.²⁶⁾ 즉, ‘2천여 명 지원’은 다만 모집협의회가 단순 집결시킨 지역 청년들을 마치 모두 지원자인 것처럼 과장한 수치에 불과했다.²⁷⁾ 만주국군의 충원은 형식상 모병제였으나 실질적으로는 각 군관구별 지역 할당제였음을 고려하면 간도특설대의 모병 역시 실제로는 이와 유사한 성격이었을 것이라 생각된다.²⁸⁾ 다만 간도특설대 모병에 동원된 수사는 군국

25) 『만선일보』 1940년 1월 30일.

26) “국군조선인부대 모집협의회 개최 화룡대남자학교 강당에서”, 『만선일보』 1940년 1월 18일; “조선인특설부대 화룡현 응모자 2천여 명”, 『만선일보』 1940년 1월 31일.

27) 조건, 2009, 앞의 논문, 61~64쪽.

주의의 권위가 절정에 이르던 시기에 식민지인들이 군 복무를 ‘군역’이 아닌 ‘혜택’으로 여길 수 있었음을 보여준다.

2. 민족적 명분: 명예와 치안

관(官)의 모병 설득논리와 함께 지원자들에게 가장 많은 영향을 미친 것은 간도성 조선인 사회의 협력이었다. 간도특설대는 그 인적·지역적 특성으로 말미암아 간도성 조선인 사회와 밀접하게 연관이 되어 있었다. 간도특설대 지원자의 조건은 ‘간도성에 거주하는 조선인’으로 한정되어 있었고, 주둔지 역시 일제강점기 중 이주한 조선인의 대표적인 집거지역이었던 간도성 안도현 명월구(明月溝)에 위치하였기 때문이었다.²⁹⁾ 그렇기 때문에 간도성의 조선인 사회에서 비롯된 입대 명분은 ‘오족협화(五族協和)’나 ‘만선여일(滿鮮如一)’과 같이 외부로부터 주어진 이념보다 강력한 동기를 제공하였다.

간도성의 조선인 사회는 일찍이 만주 내 독립운동의 근간 역할을 하였으나, 1930년대에 이르러 조선총독부·관동군 및 조선인 친일단체의 통제를 받아 점차 식민통치에 협조하는 집단으로 변모해갔다. 일제는 이미 1910년대부터 용정에 위치한 간도총영사관을 통하여 조선인 사회에 침투할 친일단체들을 조직·후원해 간접적인 통제를 피하였고, 이러한 통제는 1936년 10월 조선총독부와 관동군의 합의로 시행되기 시작한 조선과 만주국 관리의 인사교환으로 절정에 이르렀다. 일제의 패망까지 만주국으로 전직한 조선인 고등관은 25명에 이르렀고, 특히 간도특설대가 창설되기 직전인 1937년에는 간도성의 성장(省長)에 조선인으로선 최초로 조선총독부 아래서 강원지사와 충남지사, 중추원 참의를 지낸 이범익(李範益)이 임명되었다.³⁰⁾ 간도특설대 창설을 앞두고 간도성 조선인 사회는 “국군에

28) 다나카 류이치, 「만주국민의 창출과 재만 조선인 문제-오족협화와 내선일체의 갈등」, 『만주-동아시아 융합의 공간』, 소명출판, 268쪽.

29) 차상훈, 1993, 앞의 글, 582쪽; 손춘일, 2007, 「간도성 조선인 친일무장단체 ‘특설부대’에 관한 연구」, 『항일의 역사와 동북아시아의 평화와 변명』, 2007년도 상반기 학술진흥재단 남북학술교류지원사업 선정과제 발표문, 63쪽.

30) 김효순, 2014, 앞의 책, 144~145쪽.

참가를 지원하는 공기가 농후”하였다는 『만주국군지』의 설명은 이러한 과정의 결과였을 것이다.³¹⁾

간도특설대에 대한 간도성 조선인 사회의 지지는 당시 언론보도를 통해 자주 언급되었다. 1939~40년 중 『만선일보』에서는 간도특설대를 후원하는 간도성 조선인들의 노력을 빈번히 보도하였다.³²⁾ 이 보도문들에서 주목할 만한 점은, 앞서 모병선전에서 동원되었던 국민으로서의 책임은 희석된 대신 간도성 내 조선인들의 명예를 높이고 치안유지와 후원으로써 상부(相扶)하는, 즉 민족주의적 관념이 좀 더 강조되고 있다는 것이다.

조선청년의 영예를 짊어지고 국가의 간성으로서 활약하고 있던 국군특설부대의 용사들의 노고를 위로하고 사기를 진작시키는 일방충후국민의 적성의 물적, 심적을 표시하기 위하여 조직된 특설부대후원회에서는 누차 보도한 바와 같이 성내(省內)에서 각 가촌(街村)에 배당하여 기부금을 모집하고 있는 중중인데 금번 용정에서는 이 배당금과는 별개로 선계(鮮系)의 학교 아동과 종교사회단체에 대하여 약간의 기부를 모집하게 되었다.³³⁾

국군특설부대의 선계(鮮系)의 최고 간부장교이고 동 부대 창설 이래 금일까지 애써 내려온 김추찬 상위는 18일 ○○ 방면으로부터 염(染) 1부대장과 함께 명월구로 귀대하는 도중 용정에 들렸는데 (...) 김 상위는 다음 같이 말하였다. “특설부대가 창설된 지 만 일 년 반, 해수로는 3년 동안 표면상으로는 뚜렷한 성과가 나타나 있지 아니하여 우리로서는 유감이며 부끄러우나 그러나 내면적으로는 커다란 성적을 내고 있다는 것을 말하고 싶습니다. 이것은 오로지 여러분의 성원의 결과라 깊이 감사하며 특설부대는 용정이 낳아준 것이라고 함이 적절한 말일 것이며 병사들도 용정을 고향이나 다름없이 정답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리 부대가 잘 성장

31) 『만주국군지』, 33쪽.

32) “특설부대 위문금”, 『만선일보』 1939년 12월 7일, 1940년 7월 26일, 1월 31일; “국군조선인 특설부대 위문기(裳)”, 1940년 1월 25일, (중)1940년 1월 26일, (하)1940년 1월 27일; “특설부대용사에게 성민 1천원 증정”, 1940년 2월 2일; “특설부대위안회 전체위원회”, 1940년 6월 23일.

33) “조선청년의 영예 특설부대용사를 위로하자”, 『만선일보』 1939년 12월 15일.

하고 못함은 꼭 여러분의 성원 여하에 있다고 생각합니다.”³⁴⁾

먼저 민족적 명예는 당시 언론보도뿐만 아니라 간도특설대에 참여했던 조선인들의 회고에서도 가장 자주 언급되는 동기이다. 만주국은 이념상 ‘오족협화’를 내세워 일본인·한족(漢族)·만주족·조선인·몽골족의 협치를 주장하였지만, 이 가운데 조선인은 국적법상 일본인과 동일한 취급을 받는 유일한 민족이었다. 이로 인해 만주국 내 조선인은 오족협화와 ‘황국신민’의 모순 위에서 타민족에 앞선 ‘2등국민’의 명예를 누리고 있었다.³⁵⁾ 만주국군에 복무하는 조선인들은 우수한 복무실적을 과시함으로써 자신들의 민족적 명예와 우월감을 간접적으로 드러냈다. 예컨대 『만주국군지』는 간도특설대의 조선인 장병들이 “사격과 총검술은 [간도성이 속한 만주국군] 제6관구와 전군대회에서 항상 우승”을 했으며 “야간기동은 부대가 부락 부근을 통과하여도 그 촌락의 개가 짚지 않을 정도”여서 상승(常勝)의 명예를 떨쳤다고 주장하였다.³⁶⁾ 심지어 평토훈관학교 제9기를 거쳐 간도특설대에 근무하였던 백선엽(白善燁)은 자신의 회고에서 ‘어느 날 밤 보초가 근무 중 졸았다가 이 사실을 당직사관에게 지적받자, 그를 지도할 책임이 있던 위병장이 다음 날 아침 권총으로 자결하였다’는 일화를 들어 “간도특설대의 정강(精強)”을 보여주는 사례로 언급하였다.³⁷⁾ 그러나 이와 같은 간도특설대의 정예적 특성은 조선인의 민족적 우월성을 보여주는 사례보다는 도리어 그들이 얼마나 일제의 군국주의에 깊게 심취해 있었는지를 보여주는 방증에 불과하였다. 간도특설대가 만주국군의 부대임에도 “아마토혼[大和魂]은 우리를 고무한다, 천황은 특설부대를 사랑한다”는 부대가를 불렀다는 사실은 이들의 성격을 단적으로 보여준다.³⁸⁾

또 다른 민족적 명분은 바로 ‘치안숙정(治安肅整)’의 필요성이었다. 간도특설대

34) “특설부대 용사는 용정을 고향같이 여긴다”, 『만선일보』 1940년 2월 22일.

35) 민족월등주의에 입각하여 조선인을 포함하는 일본인의 ‘이중국적’ 논의에 대하여 최봉룡, 2011, 「만주국의 국적법을 둘러싼 딜레마: 조선인의 ‘이중국적’문제」, 『한국민족운동사연구』 69 참조.

36) 『만주국군지』, 34~35쪽.

37) 백선엽, 2013, 『若き將軍の朝鮮戦争』, 草思社, 73쪽.

38) 류연산, 2004, 『일송정 푸른 숲에 선구자는 없었다: 재만 조선인 친일 행적 보고서』, 아이필드, 223쪽.

는 창설 직후부터 간도 지역에서 활동하던 항일유격부대를 추적하고 토벌하는 임무를 수행하였다. 일례로 1939년 4월에는 간도특설대에서 첫 조선인 전사자가 발생하였는데, 『만선일보』의 보도에 따르면 “길림성 화전현 대포시하의 조선인 부락을 비적 양정우(楊靖宇)부대 4백여 명이 습격한 후 그 일부대는 안도현 방면으로 향한다는 정보”에 따라 간도특설대 일부를 투입하였고, 그 과정에서 8일 허규호가 교전 중 전사하였다.³⁹⁾ 여기서 언급된 ‘양정우부대’는 동북항일연군의 제1로군을 가리키는데, 이들은 1937년 보천보전투를 통해 만주지역에서 활동하는 가장 대표적인 항일 유격대였다.⁴⁰⁾

간도특설대는 이러한 항일 유격대를 토벌하는 것이 곧 간도성의 조선인들을 보호하는 것으로 스스로를 정당화할 수 있었다. 만주국은 1933년부터 동만 지역의 항일무장투쟁을 약화하기 위해 이들의 활동지역에 분산된 농가를 강제로 집결시켜 하나의 부락에 수용하는 ‘집가병둔(集家併屯)’ 정책을 실시하였다. 이러한 까닭에 항일연군의 기습은 필연적으로 이렇게 형성된 집단부락에 집중되었다. 일본 관헌 보고에 따르면 1940년 1월부터 6월까지 반 년 동안 간도성의 연길·화룡·왕청·안도현의 네 곳에서 이루어진 집단부락 공격은 모두 46회로 집계되었다.⁴¹⁾ 백선엽은 자신의 회고에서 동북항일연군 제1로군을 상대로 한 간도특설대의 토벌을 이렇게 설명하였다.

[계릴라들이] 어떻게 살아가느냐면 ‘보급 투쟁’이라고 부르는 약탈에 의하고 있다. 어린이나 부녀자를 납치해 세뇌하고 전력화한다. 이래서는 주민이 늘어나지 않는다. 그렇지 않아도 가난한 살림에 정규의 세금이 떼이고, 계릴라의 보급투쟁의 목표가 되고, 부녀자뿐 아니라 성인 남자까지 노동력, 전투력으로 끌려간다. 원래 만주, 특히 북부 및 동부 산악지대에는 중앙정부의 권능이 미치지 못해 치안이 나빴다. 사람들은 그 고통을 어디에 호소할 수도 없었다. (...) 그런 상황을 보면 ‘이 사람들 편에 서야지’라고 생각하는 게 인간일 것이다. 계릴라가 어떤 목적을 가지고

39) “안도일대 토벌 중 특설부대 일명 순직”, 『조선일보』 1939년 6월 14일.

40) 吉林省檔案館編譯, 1986, 『偽滿檔案資料: 東北抗日運動概況(1938-1942)』, 吉林文史出版社, 86쪽.

41) 김효순, 2014, 앞의 책, 200~202쪽.

있든 치안을 확보하고 주민들은 넉넉하지 못하든 간에 적어도 안녕한 매일을 보냈으면 하는 것이 간도특설대의 공통된 심정이었다.⁴²⁾

이러한 상황을 종합적으로 살펴본다면, 간도특설대에 근무하는 조선인 장병들은 타국에서, 그것도 자신들의 거주지이자 근무지인 곳에서 다른 조선인들을 차별하는 모순을 치안유지의 명분으로 배제할 수 있었다. 또 이러한 의식은 간도성 조선인 사회로부터 보내온 지지와 후원, 그리고 그 지지에 담겨 있는 민족적 자긍심을 통해 강화될 수 있었다. 결국 만주국군에 입대한 조선인들은 만주국의 국익을 수호한다는 명목상의 목적의식에 앞서, 조선인들을 보호하고 또 그들을 대표한다는 의식을 가졌으리라 생각된다.

이와 같은 군국주의와 민족주의, 치안 우선의식의 결합은 1945년 광복 이후 만주국군 경력자들이 자신들의 친일부역 의혹을 민족심의 표현으로 변명할 수 있게 하는 중요한 배경이 되었다. 예컨대 만주국군 상위를 지낸 정일권(丁一權)은 회고록에서 자신이 1935년 용정 광명중학교를 졸업할 즈음 경성법학전문학교 진학을 목표로 하였으나, 애국적인 은사가 “머지않아 만주는 물론 중국 대륙까지 집어삼키려 할 것”이고, “자네가 들어가서 후배들을 이끌어 주면 우리 독립군이 그만큼 우수한 지휘관을 확보할 수 있다는 설계”로서 평토훈관학교의 입학권을 얻어 여기에 응했다고 적었다.⁴³⁾ 심지어 그는 만주국군 장교가 된 후 모교로 돌아와 후배들의 사관학교 진학을 중용했던 일조차 “독립결사의 숨은 지하조직”이었던 신징의 조선인 교민회와 상의된 일이었다고 적고 있다. 그러나 그가 만주국군 장교로서 임무에 충실했던 탓에 1939년에 입교한 신징군관학교 제1기의 조선인 13명 중 11명이 그의 광명중학교 후배이며, 이로부터 형성된 그의 만주국군 인맥이 훗날 광복 이후 한국군 내의 ‘함경도 파벌’로 이어져 그들의 생존과 출세에 결정적인 보탬이 되었음은 언급되지 않고 있다.⁴⁴⁾ 결국 그의 회고는 사후 변

42) 백선엽, 2013, 앞의 책, 74~75쪽.

43) 정일권, 1996, 『정일권회고록』, 고려서적, 62~63쪽.

44) 한국군 내 함경도 파벌에 대해서는 “1962년 미 대사관 기밀문건”, 『신동아』 2010년 3월호 참조. 1961년

명적인 것으로 당대를 연구하는 데 활용하기 어렵지만, 다만 그가 구사하는 서사를 통해 식민지배와 민족주의가 중첩되던 1930~40년대 만주의 특이성을 상상할 기회를 제공한다.

3. 신분 상승의 욕구

반면 간도특설대를 비롯하여 만주국군에 근무한 경력이 있는 조선인들의 회고에서 자주 드러나는 입대 동기는 개인적인 것, 즉 생계유지와 출세에 관한 것이었다. 만주국군 근무 경험을 담은 회고록들은 대개 자신의 ‘친일’ 이력을 무마하거나 변명하기 위해 각색되었을 가능성을 고려해야 한다. 그러나 실제 만주국군에 대한 재만 조선인 사회의 분위기를 먼저 이해한 상태에서 회고록들을 비판적으로 읽는다면, 이 속에 반영된 당대의 일 사실들을 발견할 수 있을 것이다.

먼저 만주국군 입대의 전말이 잘 드러나 있는 회고록들을 검토해보자. 첫째로 임익순(林益淳)은 1917년 전라북도 익산에서 3·1운동 당시 민족대표 48인 중 한 명으로서 독립선언서를 일본 정부에 전달한 임규(林圭, 1867~1948)의 장손으로 태어났다. 회고록에 따르면 그는 생계를 위해 서울에서 생활하던 여러 잡역을 하던 중인 1938년 “특별한 계획이나 목적은 없었지만 그저 가보고 싶었”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단신으로 만주에 이주하였다. 그는 신징에서 구호소에 의탁한 삶을 살다가 다른 조선인의 제안으로 1938년 만주국군 독립 제1자동차대에 이등병으로 입대하였고, 노몬한사건을 비롯한 여러 전투에 참전하며 18개월의 만기복무를 마친 뒤 1939년에 제대 귀향하였다. 그의 입대는 만주에서의 생계 해결과 미래를 위해 “군대교육만을 받겠다는 생각”이 뒤영킨 결정이었고, 같은 부대에 근무하는 다른 조선인들도 “대부분이 숙식을 해결하고 운전 기술을 배우기 위한 목적”이었다고 회고하였다.⁴⁵⁾

5·16군사정변 이후 1년간의 조사 끝에 주한미국대사관 정치참사관에 의해 작성된 이 보고서에는 정 일권이 “군부에서 박정희 의장의 가장 강력한 경쟁자이며, 군의 파벌 지도자에 대한 충성이라는 가장 중요한 기제를 보유하고 있는 인물”이라 평가하고 있다.

45) 임익순, 2013, 앞의 책, 47쪽; 61쪽. 임익순(1917~1997)은 광복 후 1946년 육군사관학교 제2기를 거쳐 육군 장교가 되었다. 1952년 10월 제9사단 제30연대장으로 백마고지전투를 지휘하였고, 정전협정 체

생계의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해 만주국군 입대를 선택한 또 다른 사례로는 신현준이 있다. 신현준(申鉉俊)은 1915년 경상북도 금릉에서 태어나 농민인 부친을 따라 1919년 만주의 삼가자(三家子)로 이주, 오랫동안 유민 생활을 영위하였다.

그는 하얼빈의 빈민구제소에 의탁해 생활하며 하얼빈보통학교에 재학하던 중 만주사변을 맞았고, 이듬해인 1932년 당시 하얼빈 남강에 주둔 중이던 일본군 제14사단의 통역을 자원하였다. 그는 회고에서 이 자원의 동기를 “무엇보다도 몹시도 빈궁하였던 당시의 가정 형편”을 들었다. 즉, 자신의 유창한 중국어로 집안 살림을 보태겠다는 것이었다. 신현준은 여기서 만난 일본군 장교들과 함께 만주국군 내에서 근무하였고, 이 과정에서 군인으로서의 신분 전환을 권유받아 1936년 평텐군관학교 제5기로 입교하여 졸업 후 간도특설대 등에서 근무하였다.⁴⁶⁾ 한편 김일환(金一煥)은 강원도 철원에서 태어나, 그의 부친 김명제가 1919년 철원에국단사건에 연루되어 그해 만주로 이주하였고, 하얼빈 빈강YMCA학원에 재학 중이던 1932년 신현준과 마찬가지로 일본군의 통역으로 선발되어 종군하였다. 그는 자신의 종군을 일본군이 한인 학교에게 통역원을 요구하여 사실상 징용되었다고 회고하였으나 그 선발시기와 장소, 과정이 신현준과 매우 유사하므로 ‘징용’ 여부에 대해선 강한 의심의 여지가 있다. 그는 일본군의 병요지지반(兵要地誌班)에 참여하였고 이후엔 하얼빈의 만주국군 고문부에 근무하던 중 1936년 평텐군관학교 제5기로 입교하여, 졸업 후 만주국군 경리장교로 근무하였다.⁴⁷⁾

앞선 임익순과 신현준, 김일환의 사례에서 공통적으로 드러나는 점은, 직업을 얻는다는 동기뿐만 아니라 군인으로서의 신분 상승 의도가 엿보인다는 것이다.

결 직전인 1953년 7월 수도사단 부사단장(대령)으로 금성지구전투에 참가하였다가 중국군의 포로가 되어 한 달 만에 포로교환으로 귀환하였다. 이 이후 포로 신분이었다는 이유로 진급이 정제되었고 결국 1963년 대령으로 예편하였다.

46) 신현준, 1989, 『노해병의 회고록』, 가톨릭출판사, 31쪽. 신현준(1915~2007)은 광복 후 1946년 해안경비대를 통해 해군장교로 임관하였고, 1949년 해병대가 창설되자 신분을 전환해 해병장교로서 한국전쟁에 참전하였다. 1961년 중장으로 예편하였고 이후 모로코·바티칸대사 등을 역임하였다.

47) 김일환, 2015, 『김일환 회고록: 대한민국 국가건설기의 역할을 중심으로』, 홍성사, 52~53쪽. 김일환(1914~2001)은 광복 후 1947년 육군사관학교 제3기를 거쳐 육군장교가 되었고, 1954년 중장으로 예편한 후 이승만 정권 하에서 상공부장관·내무부장관·교통부장관을 역임하였다.



[사진 1] “간도특설부대에서 군관교생 3명”, 『만선일보』 (1940년 1월 25일).

간도특설대 제1기 사병으로 근무하던 중 평텐군관학교에 합격한 조선인 3명을 소개하고 있다. 태용범(太鎔凡)은 이 기사에서 ‘태용환(太鎔丸)’으로 오기되어 있다. 태용범은 평텐군관학교 제8기, 손병길과 윤수현은 제9기를 졸업하였다.

이미 같은 장의 앞 절에서 다루었듯, 군국주의 아래에서 군 복무는 참정권에 접근할 통로로서 식민지인들에게 일종의 특권으로 간주되기도 하였다. 따라서 만주국군에 입대하는 조선인은 사병과 초급장교의 박봉에도 불구하고 영내생활로 생계를 지탱하고, 장차 제공될 사회적 신분상승의 기회를 모색했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사례는 간도특설대 사병으로서 근무하던 중 장교로의 신분 전환 기회를 잡은 이들에게서도 확인할 수 있다. [사진 1]은 1940년 1월 25일 『만선일보』의 보도로, 간도특설대 제1기 사병으로 근무하던 중 평텐군관학교에 합격한 조선인 3명을 각각의 사진과 함께 소개하고 있다. 이러한 장교 진출의 기회는 간도특설대의 모병선전 당시 내걸었던 몇 안 되는 특전 중의 하나였다.

일부 입대자들은 당시 조선인에게 드물었던 고등교육 진학 기회로서 만주국군 사관학교를 선택하였다. 앞서 다루었던 정일권의 평텐군관학교 입교 역시 대학 진학의 대용물로서 “학비 없이도 대학 수준의 공부를 할 수 있다는” 점이 고려된

것이였다.⁴⁸⁾ 이와 유사한 사례로는 백선엽이 있다. 회고록에 따르면 그는 1939년 평양사범학교를 졸업한 후 학업을 지속하고 싶었지만 “한반도의 대학은 경성 제국대학 단 한 곳이었고 그 외 상급학교는 적었”고, “그렇다고 일본 사립대학에 유학을 갈 정도의 여유는 없었”기 때문에 평토헌군관학교에 진학할 것을 결심하였다.⁴⁹⁾ 여기서 눈여겨 볼 대목은 그가 사범학교 졸업자로서 2년간의 교사근무의 무가 있었음에도, 당시 만주국군 군의관으로 근무하던 원용덕(元容德)을 매개로 평토헌군관학교와 평양사범학교의 일본군을 통해 그 의무를 면제받은 것이다.⁵⁰⁾ 백선엽 스스로도 “군의 의향이 절대라고 할 시대”의 산물로 평가한 이 특전은, 조선인의 만주국군 사관학교 진학의 의미가 단순히 대학교육의 기회에 그칠 수 없었음을 보여주고 있다. 만주국군 사관학교는 당시 조선인에게 군국주의의 대열에 가장 빠르게 합류하는 등용문이었다.

IV. 결론

지리적으로 만주는 조국독립운동의 근거지요, 무장독립군의 활약무대였다. 조국이 일제에 점령되자 우리들의 선조들은 민족적 분노를 참다못해 만주로 망명하였다. 일제의 치하에서 만주야말로 애국지사의 망명지요, 젊은 청소년학도들에게 독립정신과 민족의식을 고취해준 곳이다. (...) 우리들 만주군인 출신은 일제탄압하에서 조국 땅을 떠나 유서 깊은 만주에서 독립정신과 민족의식을 함양하며 무예를 연마한 혈맹의 동지들이다. 우리는 타향인 만주에서 철석같은 정신과 신념 밑에서 철석같은 훈련을 거듭하며 8·15광복을 맞이하였다. 건국 건군 40유여 년이 된 오늘날 50여 명의 장성급과 다수의 영관급 고급장교가 배출되어 조국의 독립과 자유 수호에 공헌하였다.⁵¹⁾

48) 정일권, 1996, 앞의 책, 62~63쪽.

49) 백선엽, 2013, 앞의 책, 66~67쪽.

50) 백선엽, 2013, 위의 책, 67~68쪽.

51) 『만주국군지』, 1쪽.

『만주국군지』의 서문은 ‘만주군인 출신’과 ‘독립정신’을 같은 위상에서 다루며, 만주국군의 군훈(軍訓)인 ‘철석기율(鐵石紀律)’을 자신들의 신념을 표현하는 수사로 동원하는 등 친일부역행위와 민족주의가 기묘하게 뒤엉켜 있는 서술을 보여준다. 이 서문은 만주국군 경력자들의 친일성을 입증하는 사료로서 이미 많은 학자와 언론의 조명을 받았지만 그 ‘기묘한 뒤엉킴’이 지적되는 경우는 거의 없었다. 본 고에서는 이상의 내용을 통해 만주국군에 입대한 조선인들의 동기에서 이러한 서술의 근원이 되는 ‘협력적 민족주의’가 포착됨을 지적하였다. 요컨대 1938년 간도 특설대의 창설을 중심으로 분석한 만주국군 내 조선인 입대자들의 동기는 크게 세 가지, 즉 첫째 관(官)의 모병선전을 통해 자극된 황국신민으로서의 권리 획득 욕구, 둘째 재만 조선인의 인종적 우월감과 거주지 치안유지의 필요성, 셋째 군국주의의 영합을 통한 신분 상승의 의도이다. 결과적으로 만주국군 복무를 선택한 조선인들의 동기는 단순히 ‘친일부역’의 영역에만 머물러 있지 않고, 재만 조선인 사회에 드리워진 저항과 협력의 중첩 위에 놓여 있음을 보여준다.

이 중첩을 가장 선명하게 보여주는 대목은 바로 만주국군 경력자들의 회고록에서 빈출하는 민족주의적 서사이다. 만주국군에 자원한 이들의 회고록은 곧잘 자신들의 부역활동을 재만 조선인 사회가 낳은 민족정신의 발로(發露)로 치환하는 경향을 보인다. 이러한 서사는 당연히 그들의 친일부역행위를 변명하기 위한 수단에 불과하지만, 그 안에는 실제로 당시 지원자들이 경험하였을 ‘협력적 민족주의’의 심상이 반영되어 있다. 즉, 훗날을 민족의 군사역량을 강화해두고, 그 과정에서 일본인과 중국인 앞에 민족의 명예를 보이는 것이다. 조선인으로서 만주국군 경력을 가진 자들이 일본군 경력자보다 자신의 이력을 드러내는 데 거리낌이 없고, 더구나 이를 민족적=애국적인 것으로 과시할 수 있었던 것은 만주국 시기 재만 조선인 사회만의 독특한 민족주의 지형에 따른 것이었다. 만주국군 입대 동기를 통해 포착된 재만 조선인의 삶은 식민지와 민족강역의 중간지대에 놓여 있었고, 일본 및 조선과의 물리적 거리를 통해 도리어 군국주의에 원활하게 편승할 심리적 여유를 확보했다고도 볼 수 있을 것이다.

참고문헌

1. 자료

『동아일보』, 『만선일보』, 『조선일보』

2. 논문 및 단행본

김석범 외, 1987, 『만주국군지』, 발행처 불명

김일환, 2015, 『김일환 회고록: 대한민국 국가건설기의 역할을 중심으로』, 홍성사

김주용, 2008, 「만주지역 간도특설대의 설립과 활동」, 『한일관계사연구』 제31호, 한일관계사학회

김효순, 2014, 『간도특설대: 1930년대 만주, 조선인으로 구성된 ‘친일토벌부대’』, 서해문집

류연산, 2004, 『일송정 푸른 숲에 선구자는 없었다: 재만 조선인 친일 행적 보고서』, 아이필드

백선엽, 1993, 『対ゲリラ戦・アメリカはなぜ負けたか』, 原書房

——, 2013, 『若き將軍の朝鮮戦争』, 草思社

신현준, 1989, 『노해병의 회고록』, 가톨릭출판사

임익순, 2013, 『내 심장의 파편: 백마고지의 영웅 임익순 대령 회고록』, 시월.

정일권, 1996, 『정일권회고록』, 고려서적

조건, 2009, 「일제의 간도성 ‘조선인특설부대’ 창설과 재만 조선인 동원(1938~1943)」, 『한국근현대사연구』 제49호, 한국근현대사학회

표영수, 2014, 「일제강점기 육군특별지원병제도와 조선인 강제동원」, 『한국민족운동사연구』 79호.

한석정, 2016, 『만주 모던: 60년대 한국 개발 체제의 기원』, 문학과지성사

Eckert, Carter J., 2016, *Park Chung Hee and Modern Korea: the Roots of Militarism 1866-1945*, The Belknap Press of Harvard University Press

투고일: 2022년 03월 15일 심사완료일: 2022년 04월 12일 게재확정일: 2022년 04월 12일

■ Abstract ■

Motives of Korean Volunteers to the Manchukuo Imperial Army : Focused on The Establishment of the Jiandao Special Force of 1938

Go, Han-bin (The War Memorial of Korea)

This study analyzed the social backgrounds and motives of Koreans who had volunteered to join the Manchukuo Imperial Army during colonization. Initially used as an auxiliary security force of the Japanese Kwantung Army, the Manchukuo Imperial Army was later involved in several border conflicts against the Soviet Union after 1937. In preparation for a possible war with the Soviet Union, the Manchukuo Imperial Army enlisted the help of foreign troops, including Koreans. Living primarily in the Jiandao region, the Koreans had already endured two decades of colonial rule and were thus seen as a valued and amenable source for troops.

Koreans began volunteering for the Manchukuo Imperial Army in 1938 after the establishment of the *Kanto T'üksöltae* (Jiandao Special Forces). Their motivations were multivarious. Some likely responded to pro-Japanese presses that encouraged Koreans living in Manchukuo to join the Army, such as *Mansö'n Ilbo* (Manchuria-Joseon Daily). These papers often cited the *Josö'n Yükkun T'ükp'yöl Jiwö'nbyöngryöng* (Korean Army Special Volunteers Act) of 1938 or enticed their audiences with chances of earning civil rights as "*Koukoku Shinmin* (imperial subjects of Japan)." For other volunteers, national pride in Manchukuo also weighed heavily on their decision. Their memoirs are saturated with expressions that evince a national spirit. Their volunteerism exceeds mere opportunism or notions of collaborative dispositions. It reflects a deep sense of national pride.

Keywords: Manchukuo Imperial Army, Jiandao Special Force, Koreans in Jiandao, Pro-Japanese